

올해 '영암왕인축제' 밑그림 나왔다

4월 4~7일 '소통·상생' 주제 맞춤 행사 마련 지역민 주도형 글로벌 '우수축제' 도약 목표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의 밑그림인 기본계획이 나왔다. 영암군항토축제추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왕인문화축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군은 영암의 전통문화 보존계승과 지역민 주도형 축제문화를 정착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축제장 전역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세대별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유치 콘텐츠도 더욱 확대해 올해를 왕인문화축제 세계화의 원년으로 삼고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

년 연속 '유망축제'를 뛰어넘어 '우수축제'로 도약한다는 목표까지 세웠다.

올해로 22주년을 맞는 '2019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백리길벚꽃이 만개하는 오는 4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상대포역사공원, 도기박물관 등 일원에서 '왕인의 빛! 소통·상생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려, 6개 부문 82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펼쳐진다.

아울러 대표행사이자 축제의 메가퍼레이드인 '왕인박사 일본가요!'를

비롯해, 주제행사로 '제29회 왕인박사 추모 한시현장백일장' 등 5종, 문화공연행사로 '우리 동네 문화인 페스티벌' 등 29종, 놀이체험행사로 '어린이 왕인스쿨' 등 25종, 연계행사인 '구림벚꽃길 걷기대회' 등 6종, 부대행사로 '벚꽃로드 낭만열차투어' 등 16종이 함께 열린다.

또한 축제가 열리는 동안 벚꽃이 만개할 축제장 전역은 문화공간은 포도존으로 조성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왕인박사 탄생지, 성천 등에 전통기부예체합, 꽃마차 운영 등 프로그램을 배치하고, '왕인 보물챌린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포와 구림마을까지 축제장으로 활성화한다.

뿐만 아니라 버스킹, 길거리 공연, 벚꽃로드 낭만열차 투어 등을 통해 축제권역을 더욱 넓히면서, '상징 포토월 왕인' 등을 통해 다양한 포토존을 만들어 관광객들이 축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추억으로 남기게 한다는 전략이다.

전동평 군수는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여행사 및 외국 언론 등에 배포하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진행해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왕인박사가 도입해 일본에 상륙했던 곳인 간자키시 등과 적극 협력해 축제에 직접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글로벌 축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친환경 '관용 전기자동차' 전달식

완도군이 전기차 이용촉진을 위해 올해 전기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관용 전기자동차 전달식 모습. /완도군 제공

완도 전기차 민간보급 본격 추진

올해 자동차 22대·이륜차 10대...최대 1,560만원 지원

완도군은 대기환경 개선과 전기차 이용 촉진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전기자동차 17대를 포함해 현재까지 26대를 보급했으며 올해는 전기자동차 22대(관용 10, 민간 12), 전기이륜차 1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조금을 차종별 최대 1,560만원, 전기이륜차는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완도=최규욱 기자

또한 전기자동차 성능이 개선되어 1회 충전 후 주행 거리가 300km 이상인 차량이 늘어나면서 충전기 18기(급속7, 완속11)를 설치 운영 중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자격은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법인단체이며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군청 환경성립과 기후 변화대응 팀에 문의하면 된다.

/완도=최규욱 기자

해남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최대 2억 용자...28일까지

해남군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규모는 단독주택 118 가구에 236억원의 공사비를 용자할 계획이다.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으로서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내로 신축·개축·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하도록 돼 있다.

고정금리는 연 2%,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강진군은 최근 한국대표여행사연합과 관광활성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진군 제공

강진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맞손'

한국대표여행사연합과 업무협약 체결

강진군과 한국대표여행사연합은 최근 군청회의실에서 관광 활성화와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대표여행사연합은 전국 각지의 58개 여행사, 10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여행사 연합단체로 국내 관광 시장개척과 다양한 여행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여행사 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강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

해양 기관은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활성화 전략 추진 ▲여행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추진 ▲관광도시 강진을 위한 협력체 구축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 상품 개발을 위해 다산초당과 백련사, 강진만생태공원, 강진미술관, 사의재 저잣거리, 다산배아채 골프&리조트, 가우도 해양레저 체험 등 강진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팸투어도 진행했다.

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최신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다산배아채 골프장과 가우도 해양레저, 사의재 저잣거리, 영랑생가와 사의재를 잇는 '강진의 몽마르뜨 언덕'은 물론, 백운동 원림, 영랑과 다산유적, 고려저자도요지 등은 여행자들의 신규 상품 개발에 매력적인 소재가 되고 있다.

/강진=한태선 기자

영암읍 주민자치위원회 공개 모집

영암군 영암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봉사할 주민자치위원을 오는 2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25명 이내로, 신청자격은 영암읍 관할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읍에 소재하는 각급학

교 이상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위원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공개모집 지원서와추천서를 작성해 신청인이 영암읍사무소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 유달산 봄 축제 준비 한창

4월 6~20일 매주 주말 테마행사 선봬

올해부터 유달산 봄 축제가 다시 관광객들을 맞는다.

목포시는 오는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유달산 봄맞이 주간으로 설정하고 유달산과 원도심 일원에서 '2019 유(달산) 케(이블카) 한! 목포 유달산 봄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732명이 참여한 기존 '이수신 수군문화축제(18.13%)' 보다 '유달산 봄 축제

(81.18%)'가 목포를 더 대표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번 축제는 유달산의 봄이라는 틀에서 둘레길 트레킹, 시립예술단체 공연, 시민노래자랑, 버스킹 공연, 케이볼카 개봉 이벤트 등 매주 차별화된 테마 행사를 선보인다.

또 수군 고대식 등 이수신 수군의 역사적 가치를 접목하며 유달·만호동 일대 근대역사문화공간 탐방과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정명여고 4·8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까지 더해 문화·역사적으로도 뜻깊은 축제로 개최할 예정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영암 삼호도서관 독서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영암삼호도서관은 군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체험과행복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독서문화강좌를 운영한다.

상반기 독서문화강좌는 다음달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운영되며, 유아 및 초등대상으로는 6개 강좌, 일반인 대상으로는 14개 강좌가 진행되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독서문화강좌는 주민

들에게 보다 신뢰감 있는 수업과 더 큰 만족을 주기 위해 기존의 수업과 연계될 수 있는 수업 과정 마련과 실력이 검증된 강사진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한다.

또한 주간강좌 뿐만 아니라 직장인 서예교실, 캘리그래피, 포슬린, 아로마테라피, 코딩 등 야간강좌도 진행된다.

수강생은 선착순 방문접수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암·삼호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강진 제14기 녹색문화대학 개강

강진군과 서울대학교가 2005년 말부터 MOU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는 제14기 녹색문화대학이 최근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이번 대학은 맞춤형 한우 질병관리, 단계 사육관리 등의 교육을 통해 강진 한우 명품화를 위한 친환경한우과정과 농산물발효를 이끌어 갈 발효식품 푸드코디네이터를 양성하기 위한 농산물발효대학과정으로 12월까지 각각 20회, 100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강진=한태선 기자



진도 군민과의 대화 진행

진도군은 최근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도 군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이동진 군수는 '희망찬 군민, 반영하는 진도' 실현을 위한 소통 행정 실천 차원에서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엔 개최되는 '군민과의 대화'는 현장 중심의 폭넓은 대화를 통해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 /진도=박병호 기자



영암 한의약 기공체조 교실 운영

영암군보건소는 만성질환과 관절통증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 50명을 선착순 접수받아 보건소 회의실에서 한의약 기공체조교실을 주2회, 하루 60분씩 72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기공체조는 노년기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동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퇴행성관절염 예방과 치료, 정신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영암 학산면 노인회 정기총회

영암군 학산면 노인회는 최근 면 커뮤니티센터 회의실에서 회원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학산면 노인회는 독천리에 위치한 커뮤니티센터 내에 노인회 사무실을 두고 300여명의 회원이 등록돼 있으며 게이브와 서예인 운영 등 활발한 노인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총회는 2018년 감사보고와 결산보고, 2019년 예산승인 심의 등 기타 토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영암=최복섭 기자